3.1운동 주역, 범어사·불교학교 학생들 기리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3.1운동 기념행사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 이하 연합신도회)가 1919년 3.1 부산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이 범어사 내 불교학교 학생 41명과 불교계 지도층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 속 호국불교를 적극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밝혔다.

연합신도회는 3월 1일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3.1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기미년 3.1운동 당시 부산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부산불교계와 범어사 내 명정학교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재조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헌향과 묵념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추모했으며 독립선언문 낭독과 기념사, 축사, 삼일절 노래 합창, 만세 삼창 등 순으로 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총무국장 원타 스님을 비롯해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및 회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원타 스님은 "1919년 3월 1일 온 국토가 태극기로 물들고 목소리 높여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 마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숭고하게 받들어 어렵고 힘든 현재 시국을 희망으로 헤쳐 나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대성 회장은 "어느 젊은 불자가 독립운동 역사 가운데 불교의 역할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제게 한 적이 있다. 독립운동 한 불교지도자와 학생들의 역할이 이미 역사서 검증 되었음에도 알리지 않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이 서울에서 열린 후 부산에서는 3월 18일 날 열렸다. 오늘 우리 앞에 위치한 이 범어사 유공비가 스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출발한 지점이었다"고 유래를 설명했다.

이어 "서슬 퍼렇던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대한독립을 위해 우리 부산불교계가 앞장섰던

독립운동 출발한 유공비서

만세운동 재현 '애국불교' 강조

범어사 및 명정학교 학생들

호국정신 선양 "높이 받들 것"

호국 불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부산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신도회는 앞으로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회원 뿐 아니라 종립학교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태극기 행진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관심을 촉구할 방침이다.

1919년 3월 18일 열린 만세 운동은 불교계 지도층이 배후 비밀참모로 활동하고 당시 범어사 내 보통학교과정인 명정학교와 고등보통학교과정인 지방학림 소속 학생 41명이 주동한 학생의거다. 18일 밤 동래 읍 서문 근방에서 의거를 시작해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며 동래시장을 거쳐 남문에 이르기 까지 행진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3월 1일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19일 오전 허영호 · 이영우 · 황학동 · 윤상은 등은 허영호가 쓴 '한번 죽음은 자유를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격문을 만들어 군중들에게 배포했다. 오후 5시경에 동래 시장 남문 부근에서 시위를 전개하여 동래 경찰서로 돌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총을 쏘며 저지했고 주동자들을 체포했다.

이 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체포된 사람은 33명이며 그 가운데 31명은 6개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을 받아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또한 명정학교와 지방학림은 재학생들의 만세시위사건 참가로 인해 일제로부터 1919년 3월 31일 폐교됐다. 1921년에 범어사 사립명정보통학교는 운영난으로 공립청룡보통학교에 병합되었다가 1926년부터 해방 전까지 금정불교전문강원으로 존속했다. 해방 이후 1950년에 금정중학교로 명칭을 바꿔 현재 종립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유공비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1995년 3월 1일 금정구에서 건립했다. 유공비 옆면에는 만세 운동을 주동한 학생 41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 하성미 기자

삼광사 금강불대, 후학 위한 교육지원금 전달

2월 26일 수료생들 십시일반 모아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수료생들이 성금을 모아 후학 양성을 기원하고 대학 발전을 위한 나눔으로 회향했다.

천태종 삼광사 부산금강불교대학(학장 세운)은 2월 26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2016년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수료식에서는 불교학과 87명과 교법사 48명이 수료했다. 특히 수료생들은 학기 기간 배운 바를 실천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각 300만원씩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부산금강불교대학 학장 세운 스님(삼광사 주지), 수료생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학장 세운 스님은 훈사를 통해 "지금까지 불교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배웠기에 이제부터 실천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부처님 법을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금강불교대학 졸업생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금강불교대학에서 배운 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보이는 모든 것을 진리의 실상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제불보살의 숨결로 느낀다면 반드시 성불에 도달할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통도복차 수익금, 이웃돕기 성금으로 회향

2월 26일 울산사회복지모금회에 2000만원 전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통도복차(福茶)' 판매 수익금 2,0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회향했다.〈사진〉

통도사는 2월 26일 설법전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통도사가 진행한 '통도福茶, 복 나누기 행사'에서 마련했다. 기부금은 저소득 생계 의료비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지 영배 스님은 "많은 분들이 동참한 성금이다. 동참하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길 바라는 심정으로 행사를 열었다"며 "행복은 나눌수록 더욱 더 커진다. 주시는 분들도 받는 분들도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광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큰 금액을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정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불국정사, 교육관 개관 및 본존불 점안

"불교대학 통한 전법도량으로"

부산 불국정사(주지 지장)가 2월 26일 교육관 개관 및 본존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앞으로 불국정사는 교육관에 강의실을 꾸리고 불교대학을 운영, 전법을 통한 포교를 펼칠 것을 밝혔다. 교육관은 실평수 175㎡로 1층 주차장과 2층 교육관으로 구성됐다.

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의 증명으로 봉행됐다.

정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법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귀의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국정사는 "부산 용호동 지역에서는 불교대학을 찾기가 어렵다. 이번 교육관 불사는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며 불교대학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자산 623억 달성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 자산 623억 원을 달성했다.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원각)은 2월 25일 대구프린스호텔 5층 글로리홀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덕현 스님은 우수조합원 이종수 외 4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사에서 덕현 스님은 "1987년부터 어렵게 성장해 온 오늘의 조합은 조합원의 관심과 성원으로 가능했다"면서 "글로벌 금융시대에 조합원의 지혜로 지역서민의 살림에 관심을 두고 알뜰히 꾸려나가자"고 인사했다.

문종래 신임 이사장은 "이날까지 우리 신협이 내실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신뢰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정유년에도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2부 본회의서는 2016년도 사업실적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서, 표준정관개정, 임원선출 등의 건들이 승인됐다.

한편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은 "1990년 8월 가칭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 후 2000년 10월 자산 100억 원 달성, 2017년 600억 원 자산을 달성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